

교육공동체 참여 기반 존중·배려 확산

전주미산초·성북초·용산초·이리고현초·이일여중 등 전북교육청,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곳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우수학교 11개교를 선정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책임 실천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에 성과를 거둔 우수학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전주미산초, 성북초, 용산초, 이리백제초, 이리고현초, 봉서

초, 소양중, 이일여자중, 군신중, 군산 금강중, 해성고 등 총 11개교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3주체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함께 확인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제도로, 현재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해 실

천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학교들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존중과 신뢰의 학교문화를 확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일여자중학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긍정 메시지 나눔 활동을 운영해 학생·학부모·교직원 간 신뢰 형성과 긍정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리고현초등학교는 학생 서포터즈단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활동을 통해 책임규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AI 음악 공모전과 쇼트폼

공모전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교육 3주체가 함께 참여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실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AI·이차전지 마이스터고로 새출발

이리공고, 2028년 첫 마이스터고 신입생 맞이 군산기계공고는 'AI·로봇' 분야로 전환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인공지능(AI)과 이차전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제20차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이리공업고의 'AI+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전환이 최종 지정·동의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기업과 함께 설계·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졸업 후 우선 취업하고 이후 학습을 이어가는 '선취업·후학습' 체계를 기반으로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이리공업고는 이번 지정에 따라 기존 화학과 배터리공정과 배터리시스템과 등 2개 학과로 재구조화하고, 리튬이온 이차전지 제조와 품질관리 등 첨단 배터리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이차전지 및 소재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업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는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개발, 시설 구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28년 3월 첫 마이스터고 신입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돼 온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인



이리공고 전경

재 수요를 반영해 기존 조선·기계 분야에서 'AI·로봇' 분야로 지정 영역을 변경한다.

이번 신규 지정과 분야 변경으로 전북지역 마이스터고는 총 5개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북이 AI와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승 이리공업고 교장은 “마이스터고 지정은 모든 교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준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준 교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에 이끌어갈 우수 기술인재 양성의 산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학과 개편과 교원 역량 강화, 실습실 및 기숙사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후원의 집', 학생 미래를 밝히다

86곳 '후원의 집' 참여... 지역·대학이 만든 상생 모델 장학금 넘어선 진심 전달... 학생에 용기와 희망 전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향한 지역 사회의 꾸준한 후원이 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온기로 이어졌다. 매달 정성을 모은 전북대 후원의 집 대표들이 직접 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6일 전북대학교 학생터전에서 '후원의 집'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전주 아서원1920 조미옥 대표 등 매달 전북대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86개소 후원의 집 대표가 직접 참석해 이주형 학생(경상대학 경제학부)을 비롯한 30명의 학생에게 뜨거운 응원이 담긴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후원의 집' 제도는 지역 업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대학 구성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며 상생을 이루는 전북대의 대표적인 지역 협력 모델이다. 2003년 시작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약 14억 원, 6,0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자 수익만으로도 340여명의 학생에게 약 2억7,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후원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시선



지난 16일 전북대학교 학생터에서 '후원의 집'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과 기대를 가까이에서 체감하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격려와 따뜻한 마음까지 선물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어지는 후원의 손길은 학생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심어준다”며 “후원의 집 장학금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가치를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조미옥 대표

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며 “여러분이 받은 장학금은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인 만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어

달라”며 “여러분의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학금 수여자 대표 홍민서 학생(화학공학부)은 “이 장학금에 담긴 지역 사회의 응원과 기대를 깊이 새기고 학업과 연구에 더욱 매진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며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학생 AI·SW 이해도 'UP'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북미래교육원서 아카데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경기)은 학생들의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경기)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2026 AI·SW 교육 아카데미를 오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학생 224명과 가족 188명(336명) 등 총 560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전북 AI·SW체험관과 미래교육연구원 연구동 교육실에서 4주간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아카데미에서는 총 10개의 AI·SW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수준과 연령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제공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대상으로 한 '학생 AI·SW교육 아카데미'는 스파이크 프라임 창의 로봇 프로젝트,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 축구, 카미봇과 함께하는 코딩 모험, 큐브로이드 스마트 그린시티 등 로봇과 코딩을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AI·SW교육 아카데미'는 AI 프로그래밍과 함께하는 코딩 캠프, 무한상상 드론 비행 미션, 생성형 AI 활용 우리 가족 동화책 만들기, AI 청소로봇 연구소 물고기를 잡아라 낚시 코딩, 터틀봇과 함께하는 코딩 첫걸음 등 가족이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생성형 AI와 로봇, 드론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학생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김경기 원장은 “AI·SW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소양을 키우고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교육연구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SW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문 선수 육성기반 마련... 호원대, 태권도 훈련장 개관식

최신 훈련환경 구축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17일 교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학생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교내 주요 보직자와 태권도부 지도자 및 학생 선수들이 참석해 태권도 훈련장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훈련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개관한 태권도 훈련장은 학생 선수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희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태권도 훈련장 개관은 학생 선수들이 더 나은



호원대학교가 17일 교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교내 주요 보직자와 태권도부 지도자 및 학생 선수들이 참석해 태권도 훈련장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한편 호원대학교는 학생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학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김제교육지원청, 2026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김제교육지원청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열었다.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윤범)은 17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2026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김제지역 고등학교와 교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대학입시 제도와 대학별 입학전형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가천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조선대학교, 호원대학교 등 13개 대학이 참가해 입학전형 안내와 1대1 진학상담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하며 학과 특성과 전공 선택, 진학 전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다양한 학과가 참여한 체험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전공 관련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이 운영한 맞춤형 진학상담 부스에서는 수시 지원 전략을 비롯해 지역의사제, 학생부 정성평가 확대, 고교 학점제와 연계한 과목 선택 등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심층 상담이 이뤄졌다. /오상근 기자

국립군산대-전북TP, 에너지 신산업 육성 MOU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RSE 사업단은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 에너지신산업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와 손잡고 전북 지역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현장 실무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산·학 협력 체계 가동에 나선다.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너지 기업들의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 종합지원센터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 발전 및 지역 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우수한 공간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실질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용으로는 △지역 특화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공동 추진, △우수 인재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지원 활성화, △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성과 확산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다양한 인력 양성 교육 및 행사를 공동 추진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육성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보유한 시설물·장비·인력 등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양현고, '2026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

IB(국제 바칼로레아) 후보학교인 양현고등학교가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원형)는 지난 16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2026 양현 학부모 아카데미를 열고 학부모들과 함께 미래 교육과 입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대학입시 환경 속에서 IB 교육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양현고가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학부모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전북대학교 IBEC 추

진 디렉티자 교육부 AI 인재양성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운 교수가 초·중·고 변화하는 대입과 IB의 지향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전문가 특강에 앞서 양현고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설명했고,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방향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학점제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오상근 기자